

청.장년 성경공부

로마서: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학습 공과>

글쓴이 : 웨슬리 쏿웰 (Wesley Shortwell)
에비 스미쓰 (Ebbie Smity)
캐디 로빈슨 힐맨 (Kathy Robinson Hillman)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로마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판권소유 © : 2006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표준새번역, 200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회장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선교, 전도 및 목회사역 부장 : 웨인 셰필드(Wane Shuffield)

성경공부 / 재차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사역팀장: 필 밀러 (Phil Miller)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한국어 집필위원

로마서(1과 ~ 13과) 번역

이재형 (뉴송침례교회)

로마서(1과 ~ 13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08년 8월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엄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의무이다. 이 교사용 공과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최대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각 수업마다, 당신은 성경공부와 준비에 도움을 주는 교사를 위한 **‘성경주해’**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주해’ 는 ‘성경적 배경이해’ 와 ‘성경해석’ , 그리고 ‘중심 의미’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적 배경이해’ 는 공부하게 될 본문 성경의 배경과 전체적인 본문의 요약을 제공한다. ‘성경해석’ 은 핵심본문의 주석을 한 절마다 제공한다. ‘중심의미’ 는 핵심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도와줄 것이다.

각 과의 두 번째 부분은 **‘학습계획’** 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철저한 **‘학습계획’** 을 세웠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활동’ 이며, 두 번째는 ‘강의와 질문’ 이다. 당신과 당신의 수업에 가장 잘 맞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 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 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 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 와 **‘탐구질문’** 과 **‘학습목표’** 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 과 **‘수업계획’** 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 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 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청.장년 성경공부

로마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Wesley Shortwell, 단원 1의 1과에서 5과 저자이다. 텍사스 Azle 에 있는 애쉬 크릭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숏웰 박사는 테네시 교회에서도 목사로 사역했었다. 그는 베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 싸우쓰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M.Div를 마치고 밴더빌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bbie Smity, 5단원 2와 3인 6과에서 10과 저자이다. 그는 싸우쓰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선교학 교수로 있다가 현재는 은퇴했다. 스미쓰 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었다.

Kathy Robinson Hillman, 단원 4의 11과에서 13과의 저자이다. 베일러 대학 부교수 및 수석 도서관원이다. 그녀는 2000-2004년까지 텍사스 여선교회의 회장으로 사역했었다. 그녀는 텍사스 엘도라도 제일침례교회에서 자랐고 베일러와 북텍사스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녀와 남편인 요한은 세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웨이코의 콜럼버스 애버뉴 침례교회의 회원이다.

로마서 개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만약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당신에게 직접 써서 보냈다면 바울은 당신에게 어떤 내용을 써서 보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모든 성경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며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성경공부의 목적이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오늘 날,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계속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어떤 성경공부는 단순히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우리의 성경공부도 로마서가 쓰였던 시대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연히 로마서 성경공부의 시작은 이 책이 누구를 위해 처음 쓰여 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너무 우리의 생각만으로 본문을 해석하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성경공부에서는 먼저 바울이 주후 50년대 중반이나 60년대 초반의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먼저 알아본다. 또한 우리 그 당시의 생활 풍경과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으로 로마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아본다.

로마교회 교인들의 생활풍경

로마제국의 수도에서 살고 있던 로마교회 교인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서 우리 이 질문에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물론 바울이 쓴 로마서의 서론부분과 그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나누려고 했던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로마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려주는 힌트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런 힌트들을 주의 깊게 찾아보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당시 로마교회의 교인들은 이제 막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모두 1세대 신앙의 개척자들로써 이교도 배경에서 막 개종하거나, 유대교 배경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이어나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지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기 위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런 자세한 어려움들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하고 큰 문제점이 되어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자들과 이교도 배경을 가진 자들의 사이가 위험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로마교회에는 유대인과 이교도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40년대에는 로마당국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네로황제가 주후 54년에 이 명령을 취소했으며 이 시기가 바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썼던 시기이다. 그래서 망명을 갔던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지만, 로마 교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의 차별대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차별하던 사회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신자들 사이에서도 선입관과 편견을 갱다는 것이 얼마나 아

려운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다.

적어도 바울은 교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록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현대의 많은 성서해석가들은 바울의 로마서를 재해석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일치함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로마 교회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불화합을 깨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성령의 열매, 복음을 통해 로마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바울의 이런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더 많이 깨닫게 하였다.

기억할 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의 초반부분에는 구원에 관한 다음의 구절이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6). 우리 이 구절을 아주 많이 들었지만 한번 상상해보자. 갈등이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좁은 방안에 앉아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 갑자기 이 구절을 같이 읽게 된 순간을 상상해보라.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벌떡 들었을 것이고, 서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시 한 번 큰소리로 그 구절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집중해서 그 구절을 읽었을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길 바란다.

보답하는 공부를 위해

성경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는 삶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옛날에 당신이 로마서를 공부했을 때엔, 로마서의 내용을 여기저기 자세하게 공부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겉부분만 다루는 느낌이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작은 요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큰 진리로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만약 위의 설명이 과거에 로마서를 공부했던 당신이 겪었던 경험이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통적으로 신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지 로마서를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직도 우리는 로마서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특히 이번 성경공부에서는 로마서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로마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살았던 특정한 크리스천들에게 쓰인 편지이지만, 여전히 이 편지는 전 시대에 걸쳐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편지이기도 하다. 바울의 로마서를 가장 잘 해석한 어느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마서는 특별한 편지이지만 또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크리스천들은 로마서를 크리스천의 믿음에 관하여 가장 논리적이고, 자세하며 조심스럽게 다룬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했다. 로마서는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깊고 도전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예수님이 우릴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공부의 단원들

각 단원의 주제들은 로마서의 핵심주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제1단원), “정말 멋진 삶”(제2단원)을 준비하시며,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제3단원),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제4단원)

제1단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은 로마서 14장을 다루며 총 5개의 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과 “점선 연결하기” (로마서 1:1-17)는 로마서의 서론을 공부하고 로마서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한다. 제 2과 “변명도 예외도 없다.” (로마서 1:18-32; 2:1-13)와 제 3과 “충분하지 못해요.” (로마서 2:17-29)는 모든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제 4과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3:21-31)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소개하고, 제 5과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다.” (4:1-17,23-25)는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면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공부한다.

제2단원 “가장 최선의 삶을 허락하다.”에서는 로마서 5-8장을 공부한다. 이번 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해결책의 유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제 6과, “정말 멋진 삶”은 로마서 5:1-11절이 본문이다. 제 7과, “인생의 새로운 길 (로마서 6:1-19),”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신자들을 격려한다. 제 8과, “당신 안의 하나님의 삶”은 로마서 8:1-11절이 본문이다. 이 과에서는 신자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릴 인도하시는지 공부하게 된다. 제 9과, “승리의 삶”은 로마서 8:12-39절을 다루며, 이 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3단원 “유대인을 계속해서 돌보심”은 로마서 9-11장을 다루며 한 과로 되어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바울의 고민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의 고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 장들이 결론을 지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 유대인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확인 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9-11장에서 제기되는 유대인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로마 교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제10과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날, 우리와도 관련된 질문이다.

제4단원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심.”는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들, 로마서 12-16장을 다룬다. 이 단원의 학과들은 지금까지 배운 신학적인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바울이 설명하는 학과들이다. 제 11과, “하나님의 긍휼에 부응하는 삶.”는 로마서 12:1-8절을 다룬다. 제 12과, “이렇게 살자.”는 로마서 12:9-13:14절을 다룬다. 이 12과는 신자들이 교회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 13과, “당신이 비록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환영하십시오.”는 로마서 14:1-21절을 다룬다.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이며, 오늘 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이다.

로마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2

단원 1: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

공부할 날짜

제 1과 _____	점선 연결하기10 (로마서 1:1-7)
제 2과 _____	변명도 예외도 없다16 (로마서 1:18-32;2:1-13)
제 3과 _____	충분하지 못해요23 (로마서 2:17-29)
제 4과 _____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29 (로마서 3:21-31)
제 5과 _____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다35 (로마서 4:1-17, 23-25)

단원 2: 가장 최선의 삶을 허락하다.

제 6과 _____	정말 멋진 삶42 (로마서 5:1-11)
제 7과 _____	인생의 새로운 길48 (로마서 6:1-19)
제 8과 _____	당신 안의 하나님의 삶54 (로마서 8:1-11)
제 9과 _____	승리의 삶60 (로마서 8:12-39)

제 3 단원. 유대인을 계속 돌보심

제 10과 _____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66 (로마서 9:1-7;10:1-13;11:1-2a;25-32)
-------------	--

제 4 단원.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심.

제 11과 _____	하나님의 긍휼에 부응하는 삶72 (로마서 12:1-8)
제 12과 _____	이렇게 살자79 (로마서 12:9-18; 13:1-14)
제 13과 _____	당신이 비록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환영하십시오85 (로마서 14:1-21)

제 1단원 :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

이번 단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은 로마서 1-4장까지 다루는 5개의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이런 인류를 구원할 복음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 1과 “점선 연결하기” (로마서 1:1-17)는 로마서의 서론을 공부하고 로마서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한다.

제 2과 “변명도 예외도 없다.” (로마서 1:18-32; 2:1-13)와 제 3과 “충분하지 못해요.” (로마서 2:17-29)는 모든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제 4과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3:21-31)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소개한다.

제 5과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다.” (4:1-17, 23-25)는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면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의 유일한 해결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

제 1단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

제 1과	점선 연결하기	로마서 1:1-7
제 2과	변명도 예외도 없다.	로마서 1:18-32; 2:1-13
제 3과	충분하지 못해요.	로마서 2:17-29
제 4과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로마서 3:21-31
제 5과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다.	로마서 4:1-17, 23-25

<p>[제 1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점선 연결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1:1-1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1:1-17</p>	<p>학습주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은 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은 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p> <p>학습목표 복음의 핵심내용을 정리해보고 이 복음이 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알아본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 예수님과 영-육-혼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 -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갖추게 한다.

들어가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된다고 선포했다. 복음은 인간에게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냈으며, 또한 인류 역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나타냈다.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도시였다. 적어도 고대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바울의 시대에 로마는 정치력의 중심도시였다. 로마는 오늘 날의 영국에서 이라크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고 통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는 역사상 최고의 군대를 보유한 군사력의 중심도시이기도 했다. 로마는 또한 세계경제의 중심도시로써 전 세계에서 로마를 통해 물자들이 수입되었다. 그래서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를 뜻한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도시라고 생각했었다.

이런 강력한 도시 한가운데에 크리스천이라는 작은 모임이 있었다. 당연히 이들도 자랑스러운 로마문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 도시가 가진 강력한 힘이나 영향력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다. 이들 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외국에서 살다가 로마로 이민 온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집안 대대로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에서 온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새로운 신앙의 길을 찾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은 믿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로마에서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볼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울은 이 편지에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에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로마교회를 세운 사람들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첫 구절들에서 그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들의 담대한 믿음이 로마제국에 소문이 자자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이 전 세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확신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로마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8:4-8)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사랑하는 _____”라고 쓰면서 편지를 시작한다. 그리고 편지를 쓴 내가 누구인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Sincerely” 라는 단어와 함께 내 이름을 쓴다. 하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로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되어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형식으로 그의 모든 편지를 썼다.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롬 1:1)이라고 소개한다.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그의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복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이며, 그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바울을 택하셨고 그 목적은 바로 전 세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복음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왔고 또한 약속되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서 4장에 언급된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써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목적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계획되었고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윗왕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 세상에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가진 분으로만 인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33년간 살았던 한 성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셨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에게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에, 그들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보기 원하노라 (1:8-15)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가 감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굳센 믿음이 로마제국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로마 크리스천의 소식을 듣고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았고, 전 세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고 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로써 그들을 격려했으며 그 결과, 그들도 다른 지역의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한 도전과 격려를 하게 되었다.

바울은 기도로만 그들을 격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꼭 한번 만나서 직접 격려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꼭 한번만 로마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로마교회를 직접 방문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들은 그가 직접 개척을 했거나 한번이라도 방문을 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하지만 로마교회는 달랐다.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로마교회에 전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아마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이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확실한 것은 로마교회는 바울의 직접적인 복음증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길 원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방문하길 원하는 구체적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 첫째, 그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길 원했다 (1:11).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이것은 상호간의 어떤 격려였을 것이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에서 “열매”를 맺기 원했다 (1:13). 물론 로마교회는 아주 성실하게 사역을 했지만, 로마에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수천 명의 많은 영혼들이 있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1:15).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아직 바울의 복음 설교는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바울은 전에도 이미 로마교회를 방문하기를 시도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방문할 수 없었다. 어떤 이유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다른 지역에서 너무 바빴던지 아니면 어떤 핍박으로 인해 가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헬라인과 헬라인이 아닌 자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헬라인이 아닌 자 (Non-Greeks)”를 다른 성경번역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번역했다. 이방인이란 헬라어를 쓰지 않고 다른 언어를 쓰는 족속들을 말한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아주 어눌하고 떠들거리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바보같은 언어라고 업신여겼다. 이 이방인들은 북쪽지방에서 거주하는데 나중에 이 지역은 독일이 된다. 이 당시 로마인들은 북쪽지방출신의 이방인들을 몹시 경멸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지방출신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그들을 통해 그들 족속에게까지 멀리 전파될 수 있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1:16-17)

이 두 구절은 바로 바울이 로마교회에 쓴 편지의 핵심요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은 우리의 모든 삶과 전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이 됩니다.

이 두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다른 어떤 힘이나 능력도 진정한 능력과 힘은 될 수 없다. 우리 삶속에서, 나아가서는 전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속에서 존재하는 진정한 능력, 힘은 바로 바울인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

나는 항상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1:16)라는 구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을까?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어느 이름 없는 작은 시골출신의 한 목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목수,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권력자들과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범죄자로 취급되어서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죽었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다. 과연 이런 예수의 모습 속에서 무슨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었는가? 아마 이런 약하고 불품없는 한 인간의 삶에 집착하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었고 특히 세상의 많은 권세와 능력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가 주장하는 예수의 복음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른다. 특히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사형을 당한 예수에게 바울은 심지어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를 바보처럼 보이게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모든 인생과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복음 안에 있다. 왜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과 창조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모든 삶과 역사의 참 의미를 보여준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요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의”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 용어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판사는 피고인이 정말 죄가 없어서 무죄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자비로워서 피고인에게 무죄판정을 내린다. 판사가 일단 무죄판정을 내리면 피고인의 신분은 바뀐다. 피고인의 범죄기록은 깨끗해지고 사회로 나와서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판결내리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하박국 2:4)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루게 된다. 전 세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의 참 의미를 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둔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참 의미와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역사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다.

로마인들은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 우주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의 적용

오늘 당신이 이 구절들을 읽을 때, 한번 머릿속으로 우주에 떠돌고 있는 파란 지구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해 보자. 거기엔 많은 몇 백 광년 거리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가 상상 할 수도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별들도 겹겹이 안에 많이 있다. 이런 광대한 상상은 인간을 아주 조그마한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왜 우린 이 작은 별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의 창조물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뚜렷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진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것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린 실망하게 된다. 우린 조국을 사랑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삶의 의미를 국가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린 결국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심하라! 돈은 아침의 이슬처럼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린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질문]

1.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위해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가?
2.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세상에서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3. “복음은 역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 복음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참고]

하나님의 의

“의”는 로마서의 핵심주제이다. 이 단어는 법정용어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면, 혹은 무죄로 석방되었을 때에 사용된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한 맺어진 관계를 설명할 때도 사용된다.

“하나님의 의”(롬 1:17)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한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심을 뜻한다.

“하나님의 의”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옳고 의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올바르게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일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신분이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신자의 신분을 유죄에서 무죄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시키심을 뜻하며,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린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런 의로움은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이번 성경공부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마지막 의미와 아주 가깝다.

사례연구

당신의 물질주의 친구는 인생의 허무함에 당황해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지금까지 남들보다 앞서서 살기 위해 일만 해왔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도 성공했었지. 하지만 이제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고 나니깐 이젠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당신이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가?

<p>[제 2과]</p>	<p style="text-align: center;">변명도 예외도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1:18-32; 2:1-1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1:18-2:16</p>	<p>학습주제 모든 사람들(죄인이든, 신앙인이든)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p> <p>탐구질문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p> <p>교육목표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 왜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죄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배운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 예수님과 영-육-혼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 -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갖추게 한다.

들어가기

바울은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때에, 당신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우리에게겐 아직 희망적인 좋은 소식이 남아있다.

난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때, 내 심장이 잠깐 멈추는 듯 하는 느낌을 받는다.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을까? 아니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들을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난 항상 긴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나쁜 소식이 너무 나빠서 좋은 소식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항상 나쁜 소식부터 물어본다. 그리고는 나쁜 소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고, 좋은 소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기를 기대한다.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다. 물론 편지에서는 어떤 소식부터 먼저 들을 것인지 로마교회 교인들에 선택권을 주진 않았다. 그는 나쁜 소식부터 먼저 전했다. 그리고 실제로 나쁜 소식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나빴다.

나쁜 소식은 정말 안 좋은 소식이다. (1:18-32)

바울이 전한 나쁜 소식은 심각하게 안 좋은 소식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라고 썼는데, 이보다 더 나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난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장을 읽을 때면 항상 약간 긴장이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면, 마치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유행불이 떨어지는 지옥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이런 전도 방법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라.”라는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을 때 또 하나 떠오르는 모습은 Katrina 허리케인이다. 어떤 전도자들은 Katrina 허리케인이 바로 최악의 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라고 선포했었다. 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허리케인이나, 지진, 스나미, 혹은 태풍과 연관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를 읽은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뜻인지 금방 이해하게 된다. 굳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금방 깨닫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삶을 예로 들면서 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이들은 모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써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사악하고 불의한 죄인들이었다 (로마서 1:18).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훨씬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왜냐면 모든 만물과 자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계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물론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간음이나 도둑질, 살인이 나쁘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라도 있을 수 없었다. 왜냐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통해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예들은 오늘 날 우리 시대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들이다. 이방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우상숭배 문제였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려는 습관은 가장 어리석은 예였다. 바울은 이런 우상숭배로 인한 3가지의 죄들을 예로 들었다.

첫째, 그들은 부도덕한 형상들로 영광스럽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다 (롬 1:21-23).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른다. 우상숭배는 인간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핵심요소이며 각종 불의들을 저지르게 한다. 창조주의 자리를 창조물로 대신하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다음의 무서운 문장으로 표현된다. “하나님께서...내어버려두사...”(롬 1:24,26,28).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다. 난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면서 포기하신다는 표정을 상상하게 된다.

창조주의 자리를 창조물로 대신하는 행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한다. 창조물로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 창조물에게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한 한 가지 예를 보게 되면, 바로 모든 종류의 불의한 성적행위를 방치한다는 것이다. 모든 불의한 성적행위는 우상숭배와 항상 연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창조주의 영원한 뜻을 한순간의 정욕과 바꾸기 때문이다 (1:24).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거짓과 바꿔서 우상숭배의 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1:15).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욕을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우상숭배와 함께 성적범죄에 빠져버렸다. 바울은 모든 종류의 남녀 간의 간음이나 혼외정사같은 불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성연애라는 무서운 범죄까지도 방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거짓과 바꿀 때엔 우리는 언제나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28절에서 바울은 우상숭배로 인한 세 번째 죄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시간낭비라고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버려두셨다.”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죄악의 결과들을 나열한다. 창조물로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들은 바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1:29)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된다.

바울이 나열한 죄악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불효나, 험담, 질투같은 것들이 살인이나 간음과 같이 나열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32절에서 이런 죄를 짓는 모든 이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랐고,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삶은 그들이 창조주의 자리를 창조물로 대신해서 우상숭배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었다. 이보다 더 나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나쁜 소식은 점점 더 나빠진다. (2:1-11)

이제 바울은 이야기의 초점을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옮긴다. 유대인에게 바울이 전하는 소식은 더 심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한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특권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특권 없이 죄악가운데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쉽게 정죄했을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정색을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으며, 오히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누구든지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7절에 말한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은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한다. (3:20-23)

바울이 설명한 2장 1-11절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나쁜 것들을 정죄하던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서 비로써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는 아직 성경이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그들과는 다르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우면서 자랐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과는 달리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때때로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다.

물론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고 큰 죄는 짓지 않는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죄는 짓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짓는 죄는 굉장히 작고 사소한 죄들이다.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음탕하지 말며, 불친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고 배웠다. 또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거만하게 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 죄인으로 취급당한다.

나쁜 소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빠진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알면서도 거역하고 죄를 짓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들밖에 없다. (2:12-13)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죄와 엉켜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나 십계명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양심에 의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는 성경

을 읽고 심계명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죄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없이 죄와 엉키어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소식 중에 가장 나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 훨씬 좋다.

드디어, 이제 좋은 소식을 들을 차례이다. 다행히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을 덮을 만큼 아주 좋다. 물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좋은 경우는 흔치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그의 고객에게 말하길, “방금 당신의 법정사건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은 나쁜 소식을 먼저 원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혈액이 당신의 혈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고객이 좋은 소식은 원치 물어보았다. 변호사가 대답하길, “근데 당신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의 예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은 소식이 항상 나쁜 소식을 잊게 할 만큼 좋지는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희망이 없는 나쁜 소식이라도 언제나 좋은 소식이 훨씬 값지고 좋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3:21절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은 소식에 대한 약간의 힌트는 로마서 1:16-17절에 잠시 언급한다.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그 심각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 전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의를 나타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로마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처음 읽을 때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신자이다. 우리도 비록 나쁜 소식을 듣게 되지만,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의 의를 생각하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릴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지만, 반면에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다. 이 세상에서 나쁜 소식은 언제나 우릴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소식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언제나 희망과 용서의 소식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언제나 나쁜 소식이 나쁜 것보다 훨씬 좋다.

오늘의 적용

왜 우리는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나쁜 소식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깨달아야 비로써 예수님께 좋은 소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난 내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심각한 곤경에 처한 자인지 깨달을 때, 비로써 좋은 소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 예배는 우리를 진노아래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께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재산을 늘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는 목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릴 죄의 구덩이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나쁜 소식부터 알아야 한다. 그래서야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비로써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이 아무리 나빠도, 좋은 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질문]

1.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2.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사고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3. 로마서 1:24,26,28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두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4.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나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판단이나 정죄를 할 때가 있는가?
5. 어떤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것 같은가? 간음, 욕심, 탐욕, 험담?
6. “모든 죄는 우상숭배의 결과이다.” 라는 신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말로, 죄는 창조주의 자리를 창조물로 대신하는 것이다.

[보충]

일반계시와 특수계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할 때, 계시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서로 논쟁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2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바울은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1:18-2:16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계시이다. 일반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이론이다. 시편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시편 19:1)”라고 표현했다. 이런 계시는 모든 이에게 나타내신다.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두 번째 방법은 특수계시이다. 특수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특별한 방법이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행하신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특별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한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히브 1:3) 누구든지 특수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동반한다.

사례연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다면 그냥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놔두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은가?

<p>[제 3과]</p>	<p style="text-align: center;">충분하지 못해요!</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2:17-29</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2:17 - 3:20</p>	<p>학습주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외적인 행실이나 종교적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p> <p>탐구질문 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나 의식, 또는 선한 행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p> <p>교육목표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연결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외적인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본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들어가기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는 분명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는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꾸게 된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아마 평소에 듣지 못하는 질문일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종교적이십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10명중 9명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고 있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 60%는 가끔 기도도 하며, 50% 이상이 종교는 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결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란 사실을 설문조사의 결과는 말하고 있다.

만약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응답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성경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주일 성경공부를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당신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나도 또한 당연히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특별히 침례교 목사로 종교에 몸담고 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이다. 난 대학교도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공부했으며, 지금도 십일조와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믿음의 의식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나와 비슷한 종교적 삶을 사는 분들일 것이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고, 매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며,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모든 행위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권의 문제점 (2:17 - 24)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지켰으며, 그런 자신들의 특권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주장했다.

유대인들의 이런 특권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여러 민족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책임과 사명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선택받은 자로써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로마서 2:21-22절에 있는 바울의 질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점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간음을 했고, 도적질을 했으며, 우상을 숭배했다고 비난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심각한 죄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철저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했는지 알 순 없지만, 아마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숨은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그의 비판은 특히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실제 삶이 너무나 다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실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대한다면 그 어떤 특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나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선택받은 백성이 그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분이 바로 문제점이

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불순종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그들의 위선적인 삶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분의 복음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그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은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의 특권은 남용되었고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특권은 오히려 심각한 문젯거리가 되어버렸다.

종교가 타락할 때 (2:25-27)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행하던 종교의식에 대해서 언급했다. 할례라는 종교의식은 유대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진 의식으로써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증거로 할례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임을 뜻하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보증서처럼 여겼다.

하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한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대항 불순종은 할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할례라는 종교의식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고 바울은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할례나 다른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물론 중요의식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침례나 성찬식과 같은 많은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교의식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분명히 종교의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침례의식을 통해 신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재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된다. 그 외의 모든 의식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가 되고, 미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식을 행할 때 마다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종교의식을 철저히 행한다는 사실이 결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장담하지 못한다.

침례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다. 하지만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고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등록교인이 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의식을 행하라고 우릴 부르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되라고 부르셨다.

문제의 핵심을 꿰다. (2:28-29)

하나님께서서는 오직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의를 얻으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모든 종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결코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한명도 없다.

얼마 전에 난 새로운 음반을 낸 어떤 punk rock 밴드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밴드팀의 이름은 "No One is Perfect"(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였다. 이들 말이 실제로 맞다. 이 세상엔 아무도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들은 결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우리 원래 자연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종교인으로써 이미 오래전부터 완전해진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언젠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루는 교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망속으로 그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헌신한 순간이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항상 집중해서 설교만을 듣기로 결단했었다. 그 결심을 한지 불과 10분후에, 난 설교시간에 친구들과 축구할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물론 난 완전해지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당신도 나처럼 완전해지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었을 것이며,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늘 친절하게 대하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런데 불과 10분후에 당신은 이웃보다 더 큰 배를 살 생각을 하고, 당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계획을 세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불과 10분 만에 완전해지려는 노력이 산산조각이 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물론 당신은 완전해지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도 내 속마음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나 스스로 너무나 잘 안다.

바울은 우리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꿰고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완전한 의로움은 불가능하다. 종교의식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종교의식이 우리의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꾼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은 결국 육신의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의 핵심을 꿰고 들어간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는 마음을 바꾼다.

이 시간에 한번 과거에 내 마음을 바꾸게 했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만약 당신이 결혼했다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게 했던 관계는 바로 지금의 배우자와의 관계였을 것이다. 처음 당신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던지 기억이 나는가? 사랑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욱 바뀌어졌을 것이다. 변화는 속마음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속마음의 변화가 겉모습까지 바뀌게 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변했던 것은 바로 당신이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며, 심지어 우리 맘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 내버리신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겉모습을 더욱더 바꾸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잘라 버리시고, 우릴 영원히 의롭게 만드신다.

종교의식은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은 분명히 비현실적인 목표이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분명 사랑의 마음을 바꾼다.

신실하신 하나님 (3:1-20)

하나님의 특수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는 없는 특권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분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슬픈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혹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교의식이나 어떤 특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통해 우릴 의롭게 하신다.

오늘의 적용

우리는 모두 종교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았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여러 가지 종교의식들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 종교의식을 통해 믿음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보면, 종교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침례나 성찬식, 혹은 등록교인이 되는 등의 종교의식들은 우리의 신앙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종교의식들은 결코 우리의 내면의 신앙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우리의 신앙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바로 이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속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가서 우리의 겉모습까지 변하게 한다.

[질문]

1.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종교의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종교의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가?
2.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한 “마음의 할례”란 무슨 뜻인가?
3. 당신의 생각에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등록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 분을 믿는 것만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에 충분한가?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아무런 이익은 없지만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따르는 것인가?
4. 종교의식, 종교적인 전통, 혹은 종교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상관성이 있는가?

[참고]

유대문화와 초대교회의 할례

이스라엘에서 할례는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행해졌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로써 행해졌다. (창세기 17장)

이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되기도 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 할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증표가 되었다. 그래서 1세기 때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에게 계속해서 할례를 강요했다.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포함해서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고 교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며,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 또는 할례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례연구

당신의 8살 된 딸아이가 당신에게 와서는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한다. 그때 당신은 딸아이에게 침례의식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리고 침례를 받기 원하는 딸아이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아이들이 다 하니깐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딸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잘 분간하고 설명하겠는가?

<p>[제 4과]</p>	<p style="text-align: center;">여기에 해결책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3:21-3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3:21-31</p>	<p>학습주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과 죄악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있는가?</p> <p>교육목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나의 믿음을 재점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확인한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들어가기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아래에 있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죄악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비참하고 참혹한 죄악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 바울은 로마서 1:18 - 3:20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진노아래에 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 혹시 희망이 있다면, 도대체 이런 죄악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릴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어떤 종교적 의식에 우리 몸을 받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움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참혹한 죄악가운데에서 우릴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좋고 은혜로운 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된다.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 (3:21 - 22a)

로마서 3:20절에 보면, 바울은 단순히 율법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좋은 집안이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22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21절의 첫 부분에 있는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합당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신다는 사실이다. 구약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해왔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개념을 복음을 통해 확실하게 나타내셨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새로운 개념은 결코 이전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이전의 “율법과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것이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다.”

믿음은 지적인 어떤 확신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믿음이란 어떤 확신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갈 때, 난 그 무거운 철체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옮겨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조종사가 그 무거운 철체 덩어리를 잘 조정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꼭 비행기를 이용하라고 권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확신은 내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경험을 해야 비로써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나의 모든 의지와 통제권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나를 정확한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생명과 모든 삶을 누군가의 손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그 분의 손에 완전히 위임하고 나의 삶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항상 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서 옷을 구할까? 따위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왜냐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21-22a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 그 분이 나를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3:22b - 25a)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오직 이 딜레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엔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을 구원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미 확실하게 설명했었다. 하지만 23절에서 그는 또 다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이들이 똑같이 죄인인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

24-25절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어들 나온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준다. 첫 번째 단어는 “의롭다”이다. 이 단어는 원래 법정용어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무죄판결을 받아서 신분이 깨끗해진다는 뜻이다. 최근에 DNA 검사가 실용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그들의 원래 신분은 죄인이었지만, 무죄판결을 받고 다시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구부러져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똑바로 된 모습이다. 우리가 죄의 딜레마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구부러진 관계가 다시 똑바로 곧은 관계로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구속”이다. 구속이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와 해방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 이 편지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이집트에서의 해방과 자유, 혹은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모습들을 상상했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 단어를 읽을 때, 사고파는 노예의 신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상상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노예경매시장에서 노예들이 서 있다가 상인들에게 팔리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경매에서 팔린 노예는 새 주인에 의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노예의 자유를 돈으로 산 것이다.

이런 모습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죄 아래서 해방시키신 모습을 나타낸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노예로 잡아두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값을 치루시고 우리는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화목재물”이라는 단어이다.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이 단어의 “뚜껑, 혹은 덮개”라는 뜻이 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궤를 덮는 뚜껑이라는 단어로도 쓰였다. 그리고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부른다. 언약의 궤는 이 뚜껑에 덮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성스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의 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다. 일 년에 하루,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 언약의 궤가 위치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속죄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는 사하신다. 구약시대에, 언약의 궤를 덮은 “속죄소”는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숨겨진 것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소가 들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자리가 되신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습들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죄의 딜레마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심판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인내 (3:25b - 26)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를 제일 먼저 읽었던 자들은 아마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알고 싶어 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심각하지 않아서거나, 혹은 우리의 죄악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인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잘 나타나있다. 은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진노의 보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진노를 최대한으로 보류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3:27-31)

로마서 2:17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그로인해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특권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자랑과 이유들을 멀리 가져가 버린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류하게 할 만큼 의로운 행실을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자랑이라는 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이다. 바울은 특별히 자랑을 즐겨하는 문

화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태도의 근본원인은 바로 우리 내면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진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인종이나, 국적, 혹은 신앙의 유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월등하다는 민족우월주의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런 민족우월주의에 의한 자랑과 교만은 고대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졌었다.

예를 들어서, 백인들은 다른 인종들보다 월등하다는 교만과 자랑에 빠져 노예를 부리고 다른 인종들의 인권을 무시했다. 또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월등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임금착취와 성차별을 일삼아 왔다. 미국에서도 자신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었거나 기독교 교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교만과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급기야 어떤 미국인들은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우월주의에 빠져 교만과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써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든 인류는 십자가 아래에서 공평하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동등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오늘의 적용

우리는 모두 죄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기쁜 소식이 하나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으신다. 언젠가 당신은 생의 마지막 숨을 쉬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장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혹은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당신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신의 특권을 혹시 자랑하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 것은 당신의 의로움은 당신이 어떤 민족에 소속되었거나, 어떤 종파에 소속되었거나, 당신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바로 감사이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의 모든 자랑과 교만은 옆으로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질문]

1. 만약 어떤 사람이 “침례는 나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믿기에 침례를 받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2. 다음의 단어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들이다. “의로움”, “구속”, 그리고 “속죄소” (3:24-25). 죄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적인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3.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복음의 진리는 인종차별, 성차별, 혹은 국수주의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참고]

호세아와 구속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그의 인생은 “구속”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해준다. 호세아는 선지자의 배우자로서는 부적합한 삶을 살아온 부도덕한 여자였다. 그녀의 행동은 불행을 불러왔고, 그녀는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당연히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 호세아는 아마 그녀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맘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노예경매장에 가서 다시 그녀를 사오게 했다.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녀의 남편으로써 결혼생활을 계속했다.

호세아가 그녀를 샀던 노예경매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시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비록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

- 의로움 :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
- 구속 :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
- 화목재물 : 직역을 하자면, 언약의 궤를 덮는 속죄소; 죄를 속죄하는 자리, 예수그리스도.
- 자비 :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보류하심.
- 은혜 : 우리 감히 감당치 못할 선물.
- 믿음 : 다른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함.

<p>[제 5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오직 믿음만이 길이다</p>
<p>핵심본문 로마서 4:1-17, 23-25</p> <p>배경 로마서 4장</p>	<p>학습 주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항상 믿음에만 근거를 두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p> <p>탐구 질문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가 아닌, 믿음의 중요성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p> <p>학습 목표 바울이 강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약하여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들어가기

바울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려주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이러할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내 삶에서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지요.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상냥하고 친절 하게 대했으며, 많은 자선을 베풀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상냥하고 친절 하게 대하여 자선을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난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선한 행실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직 희망은 이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로마서 3:22 상반절)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예화를 사용한다. 그는 구약 성경의 나타난 예화를 사용하여 그의 요점을 전달하기 원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다. 그는 선한 행실의 본보기였다 - 누군가 만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선한 사람을 증명해 보기 원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화를 사용하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원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4:1~8)

바울은 소위 “diatribe” 라고 불리는 그의 전형적인 논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

“diatribe” 논법은 한 질문을 마치 다른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듯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자에 의해 주어지는 형식이다. 바울은 종종 그의 독자들에게 일어난직한 질문들을 이런 식으로 던져서 답변하곤 했었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실을 행한 의인의 표본으로 추앙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조카 롯에게 더욱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양보할 만큼 은혜로운 사람이었다 (창세기 13장). 그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십일조를 드린 사람이기도 했다 (창세기 14장).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는 그의 외아들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명성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대대에 떨쳤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한 행실을 한 의인의 표본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창세기 15:6절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은 그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주장에 대하여 크게 소리쳤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선한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인정받았다"(credit) 라는 단어는 본래의 것에 이점을 더해준다 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킹 제임스 성경버전은 "간주하다" (reckoned)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울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선한 행실을 한 첫 번째 모범적 의인이었던 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가르쳐준다.

바울은 이 명백한 사실을 세상의 경제 원리를 통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일 할 때, 당신이 샀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 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고용 주로 하여금 당신의 빛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일은 당신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샀을 주어야하는 책임 아래서 이뤄지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책임지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빛지시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비즈니스 적인 거래 관계로 여겨진다고 생각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책임적인 일을 하셔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논리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지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의로움을 받은 것은 선물이며,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선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였다.

7절과 8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은 이 주장들을 구약 성경에서 다시 풀어 주었다. 그는 시편 32:1-2절을 인용하였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복이 있는 자며, 그의 선한 행실로 죄 용서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4:9-12)

그런 다음 바울은 할례 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그는 할례를 통하여 오직 유대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심하게 말하고자 하였다.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할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시대를 거쳐 이 의식을 행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당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고, 특별히 그들에게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 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의존하였고, 할례야 말로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옴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5:6). 그러나 할례의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서야 나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방인 이었을 때(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표징의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침례는 비슷한 예이다. 침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다고 말한다. 침례는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하심을 받은 상징인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할례를 행하기 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부터,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대인이던, 이방인의 믿는 자이던)(로마서 4:11-12절)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바울은 그 주장들을 터무니없게 만들며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우심은 믿음으로만 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율법주의는 소용이 없다 (4:13-15)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바울과 논쟁을 벌였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그의 독자들에게 상기 시켜 주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400년 후에야 율법이 생겨났음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에 순종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하심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10계명을 모두 지킨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의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하심을 받은 방법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 한 것이다.

모든 바라는 것들의 믿음 (4:18-22)

바울은 그의 다른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삶을 회상 하였다. 아브라함이 75살 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과,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주셨다 (창세기 15:5). 이것은 약속 이라고 하기 보다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밝히 말해준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에게는 아이가생기지 않았다. 사라가 웃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었다 (창세기 18:11). 그리고는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지 보였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기쁨을 뜻하는 것이었다.

우리를 향한 좋은 소식 (4:23-25)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습 그대로를 의롭다고 인정해주신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욱 특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확실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를 보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행하실 약속들을 믿으며 막연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바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약속이 성취 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나신 것을 볼 수 있다.

오늘을 위한 적용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 (로마서 4:3). 이것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아마도 당신이나 당신이 잘 아는 누군가는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할 때에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당신이 선한 일을 행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할 지도 모르겠다. 아브라함의 예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생각 하게 만들 어 준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던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빛을 지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릴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해주셨다. 믿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받는 길이다.

질문

1.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왜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2. 당신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 합니까? 믿음을 가진 좋은 본보기의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서나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생각 해자.
3. 히브리서 11: 1절을 읽어 보자. 성경에서 정의한 이 믿음과 로마서 4:22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비교해 보자
4.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누구일까?

[참고]

사례연구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하여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당신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했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선도 베푼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 할 것인가?

제 2단원 : 가장 최선의 삶을 주심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인가? 1단원에서 다루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길 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삶을 주시는 것이다.

“가장 최선의 삶을 허락하다.” 는 4개의 학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로마서 5-8장을 다룬다. 5-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다. 이 구절들은 사도의 확신을 나타내는 구절들이며, 특히 구원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신자에게 주는 자유와 유익, 그리고 축복들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래서 각 학과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다.

제 6과 (“정말 멋진 삶” 로마서 5:1-11)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주는지 설명한다.

제 7과 (“인생의 새로운 길” 로마서 6:1-19)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신자들을 격려한다.

제 8과 (“당신 안의 하나님의 삶” 로마서 8:1-11)는 신자의 진정한 삶은 죄에 항복하는 삶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신자의 진정한 삶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다.

제 9과 (“승리의 삶” 로마서 8:12-39)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2 단원. 가장 최선의 삶을 허락하다.

제 6과	정말 멋진 삶	로마서 5:1-11
제 7과	인생의 새로운 길	로마서 6:1-19
제 8과	당신 안의 하나님의 삶	로마서 8:1-11
제 9과	승리의 삶	로마서 8:12-39

<p>[제 6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정말 멋진 삶</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5:1-1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5장</p>	<p>학습주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드디어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p> <p>탐구질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p> <p>교육목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속에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는 얼마나 이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지 생각해 본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들어가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끝없는 평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멋진 삶을 주신다.

내가 어렸을 때, 매년 이발소에 갈 때마다 엄마는 날 억지로 끌고 가셨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으신 구두닦이 아저씨가 계셨다. 그 구두닦이 아저씨는 닦을 구두가 없을 때에는 항상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주 특이한 버릇이 있었다. 손님이 그냥 구두닦이 값을 지불 할 때에는, “손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팁을 넉넉히 주는 손님에게는 “손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서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 팁을 많이 주는 손님에게는 “손님! 감사합니다.”라고 큰소리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그의 대답 소리만 들어도 그 손님이 팁을 줬는지, 안줬는지, 혹은 정말 넉넉히 줬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때부터 손님들은 그의 힘찬 대답소릴 듣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팁을 넉넉히 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구두닦이에게 팁을 넉넉히 주게 되었다.

어느 날, 어떤 손님이 그 구두닦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놀렸다. 그 손님은 이렇게 질문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구두를 닦는데 25센트나 청구할 수 있지?”(기억할 것은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다.) 그 손님은 끈질기게 그 구두닦이를 놀려댔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 손님은 이발소에서 나갔다. 그 손님이 나간 후에 이발사는 구두닦이에게 대신해서 사과를 했다. “그 양반이 당신에게 그런 소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요.”

그러자 구두닦이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 괜찮습니다. 난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로 65년 동안, 난 그의 대답을 한 번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 귀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두 가지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영원한 삶, 모두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성경은 진리이고,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생각해보자.

하나님과 평화 (5:1-2)

바울은 종종 “그래서”라고 번역된 단어를 자주 쓴다. 그는 이 단어를 쓸 때, 방금 자신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려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연결해서 자주 쓴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통해 누리는 평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의 첫 4장을 통틀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죄의 형벌아래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떨어짐은 죄의 결과이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 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삶에는 평화는 없고, 오직 염려와 걱정만 있다.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양심 등에 의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지옥형벌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바울사도의 다른 편지에 보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해 놓았다. 그들은 세상과 사탄에 묶인 상태에 있으며, 죄로 가득한 본성의 욕구를 채우려는 삶을 살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에베소서 2:2-3).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는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엢 2:12).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참된 안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롬 8:28).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고, 유대인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준비하셨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사하시며 그를 다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에 있던 우리를 그의 가장 고귀한 존재로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죄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사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알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속에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목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믿는 신자의 삶속에 다시 재기될 수 있던 모든 종류의 죄들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하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신자는 그들의 영혼과 삶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안식과 평안이 나타나게 된다 (빌립보서 4:7; 뱀전 1:8; 요한 14:27; 16:22). 이 평안과 안식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불안과 동요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동안 하나님을 적대시 했던 불신자들은 더 이상 그 마음에 불안이나 공포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롬 5:1) 얻는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속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평안과 안식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런 평안과 안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평안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날을 소망하게 되었다

(5:2). “소망”이라는 단어는 확신과 신뢰라는 뜻이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함께 동참한다는 뜻이다.

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

삶의 안전 (5:3-5)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정말로 멋진 이유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평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깊은 평안으로 인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고 건강할 땐 기뻐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멋진 삶을 사는 우리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견디어야 할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통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행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인내란 불평이나 불만 없이 사탄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온화하고 평정한 성품을 말한다. 성경은 이 성품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마태 5:11-12; 야고보서 1:2-3,12; 뱀전 4:12-14)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고난 중에 초조하고 근심하게 된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이겨낼 힘과 위로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불평하고 반항적이게 된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결국 고난으로 인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릴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에게 맡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고통 중에도 최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신자는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보통 가장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신자는 가장 큰 인내심이라는 열매를 얻는다.

사도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이야기 한다. 이 단어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어떤 사물의 품질이나 성능이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 쓰인 이유는 철저한 검사와 확인을 통해 “환난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승인을 뜻한다. 인내로 견디어낸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 신자인지 나타낸다. 고난은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견고하게 만든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란 확신을 뜻한다. 역경과 함께 사는 것은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의 영혼을 강하게 키우는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소망”은 결코 믿는 신자가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 “소망”은 신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게 한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맘속에 무한한 사랑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 안에서 더욱 강하게 설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신자의 삶속에 일어나게 한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나, 혹은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항

상 멋지고 훌륭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5:6-11)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신자들에게 베푸는 축복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나약해서 사탄의 공격과 죄를 이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때에 정확하게 주어졌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보잘것없는 인간의 천한 간구를 비교하고 있다. 바울은 본문에서 어떤 의로운 사람은 다른 선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큰 사랑은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롬 5:8) 기꺼이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죄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랑을 몸소 체험했을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릴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반항적일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손을 내미셨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멋진 삶을 공급한다.

오늘의 적용

오늘 본문에서 몇 구절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깊은 평안과 환란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멋진 삶은 우리가 어떤 환란 중에도 거뜨하게 견디어 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환란 중에도 반드시 우릴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면서 기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신자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질문]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전부터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당신은 혹시 환란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벌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오늘 공부를 통해 환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배웠는가?

	구원	성화	영화
의미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선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는 과정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
형성과정	일생에 단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을 당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남.	신자의 전 생애를 통해 계속 진행됨.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시작되어서, 신자의 삶을 통해 계속 되다가 천국에서 비로써 하나님과 함께 완성됨.
시작점	예수님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신자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 질 때부터

3.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4. 언제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는가?
5. 혹시 당신은 예수님에 의해 얻은 새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p>[제 7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생의 새로운 길</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6:1-9</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5:12 - 6:23</p>	<p>학습주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p> <p>탐구질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삶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p> <p>교육목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이런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아본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들어가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작가 Harper Lee는 그의 고전소설 “앵무새 죽이기”에는 변호사 Atticus Finch의 딸, Scout이 처음 학교를 간 개학 첫날의 모습의 설명한 부분이 나온다. 개학 첫날, 선생님은 Scout의 짝꿍인 Walter Cunningham이 도시락을 안 가지고 온 것을 알고, 그에게 점심을 사먹을 돈을 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돈을 다시 선생님에게 주면서, “괜찮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

화가 난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왜 돈을 받지 않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옆에 있던 Scout이 선생님께 대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선생님! 그는 Cunningham집안의 아이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면 모두가 다 아는 이유였다. 그 지역에서 Cunningham 집안은 누구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고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는 집안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Cunningham집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에 합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은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번 학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행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유, 자유, 드디어 자유! (6: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의 독립을 알리는 아름다운 독립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기념비는 인도네시아 남자가 자신의 수갑 찬 두 손을 머리위로 번쩍 들어 올린 모습이다. 하지만 그의 손을 묶고 있는 수갑은 끊어져 있다. 이 기념비의 이름은 “Merdeka”이며 인도네시아 말로 자유라는 뜻이다.

자유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유란 더욱 큰 의미를 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은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신자는 이 믿음과 감사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나는 자유, 드디어 자유하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다.

로마서 6장 1절은 논리적으로 로마서 5장 18-21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구절이다. 사도바울은 죄와 죽음, 그리고 죄의 종노릇은 아담, 한사람의 범죄로 인해 인류에 들어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생명과 죄에서의 자유도 그리스도 한사람에 의해서 인류에 들어왔으며, 그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신자는 모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의인으로 여기시며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 후에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속에 성화라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제 6과의 마지막 도표를 참조)

로마서 6:2절에서 바울은 1절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누군가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이던지, 아니면 바울이 스스로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했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겠느냐?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헬라어의 표현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센 방법으로 대답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서 계속 살겠느냐? 어떤 것에 대해서 “죽은”이라는 표현력은 아주 강한 표현력으로써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고, 죄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이나 야심을 좇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다. (갈 2:19; 골3:3; 뱀전 2:24)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써 죄의 본성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도 죄는 우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끝없는 유혹을 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그래서 다음의 질문을 한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사탄의 죄를 물리쳤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유혹하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가?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성품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상극이 되었다.

로마서 6:3-4절에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침례의 의미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은 가장 성경적인 침례의 모습이며, 침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 구절에서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물에 잠김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의 삶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고전 12:13) 침례의 모든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그로인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롬 6:4)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다. 헬라어로 “산다”라는 단어는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가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의미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목표, 그리고 새로운 법칙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예수님 안에서 살기 (6:5-10)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합된”이라는 단어는 심어졌다는 뜻으로도 표현된다. 마치 큰 참나무에 작은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한 나뭇가지가 다른 나뭇가지위에 자라고, 또 그 나무위에 다른 나뭇가지가 자라는 것과 같은 그림을 연상시킨다. “심어졌다”라는 뜻은 또한 서로 다른 나뭇가지를 접목시키는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단어를 통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그림을 연상하길 원했을 것이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무럭무럭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그림을 연상하든지, 중요한 요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

이다. 바울은 설명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위에 심겨져서 그 힘에 의해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튼튼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삶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다.

바울은 그 다음 주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6:6-9) 두 가지의 큰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첫 번째 깨달음은 신자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고 예전의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6:6)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를 통해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 사건은 오직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순 없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두 번째 깨달음은 신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6:9).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는 그에게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 (6:11-14)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6:11)가 되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믿는 자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6:11-12).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한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6:13)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실력, 그리고 능력들을 말한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자신의 욕망이나 죄를 위해 쓰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신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며, 다른 이들의 도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들”은 경건하고 오묘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헌신하고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혀는 하나님의 찬양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울어야 하고, 성경과 역사, 그리고 그의 창조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의 뜻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다. 도구는 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다. 모든 일의 완성과 결과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절대로 도구가 스스로 일을 완성이 수 없다. 내 아들은 전문적으로 진열용 선반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가 사용하는 도구와 내가 사용하는 도구

는 똑같은데 그가 만든 선반은 정교하고 튼튼하지만 내가 만든 선반은 약하고 어설피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간단한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그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린 자신 있게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그 분께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이 사실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비로써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해진다.(6:15-19)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불신자는 죄의 종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며 그 분의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신자는 모두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의인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적용

1.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2. 그리스도인은 죄에서의 자유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3.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진리를 믿고,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그를 섬기며 살아야 한다.
4.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과 인류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질문

1.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삶을 통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가? 혹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지는 않는가? 오늘의 본문은 이런 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2. 난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데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3. 만약 당신이 잠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4.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와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참고]

앵무새 죽이기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소설가 Harper Lee의 작품으로 그는 이 작품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하였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미국에 아직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 미국사회의 인종차별과 불의한 사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이 책의 제목, 앵무새 죽이기는 인종차별과 흑인에 대한 불공평한 행위는 마치 우리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그저 노래만 들려주는 아름다운 앵무새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어느 점에서 이 책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죽이고 있는 앵무새는 없는가? 그리스도인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Charles M. Sheldon의 고전소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In His Steps)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라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모든 행동과 결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때는 19세기로,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써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과 고민을 통해 점점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삶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로 여긴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좀 더 신중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일을 시작하겠는가? 당신의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는가?

<p>[제 8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의 삶은 당신 안에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8:1-1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7:1-8:11</p>	<p>주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죄에 굴복한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에 있다.</p> <p>탐구질문 어떤 길을 통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자.</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일을 결정하고 봉사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포함한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들어가기

사람들은 육적인 행동을 계속 행하거나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삶을 살아가거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삶의 평화를 맛 볼 수 있게 된다.

기독교의 믿음을 설명한 유명한 해석자 중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A. D. 354-430) 그의 회심 전에 죄 가운데 거하는 행동을 하며 그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죄의 행동을 통해서 찾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어거스틴을 구원에 이르게 이끌어 주셨다. 회심 이후, 그는 어거스틴의 참회록 을 통해 그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얽매이는 생활을 했으나 구속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진정한 삶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했다.

마틴 루터 (1483-1546)는 중세 암흑기 시대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루터는 수도자가 되었으며 교회의 법률과 율법을 지키는데 노력하려고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만족 할 수 없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야 루터는 그가 찾던 진정한 만족을 얻었다.

이 두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원했다 - 한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는 행동을 통해, 또 한 사람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야 그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태어난 시대 훨씬 전에 그 귀중한 진리를 이해하였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죄에 굴복한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을 허락 하여 죄에 대한 값진 승리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를 얻는다고 설명하였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기 위해, 믿는 자들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죄의 지배 가운데서,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주의에서 반드시 자유 함을 얻어야 한다.

바울은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때에만 평화와 기쁨을 찾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8:1-4)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영감적인, 그리고 많이 기억되는 장 가운데 하나이다. 이 놀라운 장은 “(죄의식이나 죄로부터)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라고 시작하며, 아무도 그 사랑에서 떼어 놓 수 없다고 끝나치고 있다. (8:31-39)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8:9-28) 라고 설명한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미리 설명하였던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기 원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음을 말한다. 우리들은 또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중압감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무거운 율법으로부터 해방케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로마서 7:13-25 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 장을 가리켜 말하기를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한다. 견해에 따르면, 성경은 바울이 악에 대해 분투노력하며 경험한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인간의 힘으로만 가지고는 결코 승리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두 가지 견해 중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은 후 그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해석 가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모세의 율법을 성취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해석은 “나” 라고 사용된 것이 일반적으로 유대 문학에서 그랬듯이 과장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 는 바울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다른 접근은 다시 해석에서 보인다. 하나는, 당시 유대의 가르침은 “나” 를 말하기를 저자의 경험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 (고린도전서 13:1-3 절을 보라.) 더욱 이 해석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나” 라는 형식은 저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경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음을 나타낸다. 한 예로 구약성경의 미가서 7:8-10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들의 관습은 일인칭 대명사를 이스라엘로 표현한다. 바울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다른 유대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나는 바울의 회심 이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개인적으로 분투노력하는 견해에 마음이 기울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의 설명 (그의 개인적인 삶이나 이스라엘의 관하여)에 관한 어떠한 견해도 거의 같은 해석으로 도달 한다는 점이다.

로마서 6장에서 7장에, 바울은 사람들이 사탄의 힘과 죄 아래 놓여 있으며 그들의 힘에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는 사람들이 또한 율법의 힘과 그 요구에 결코 도달 할 수 없는 것도 보여주었다. 바울은 로마서 7:1-6에서 선언하기를 사람이 살아갈 동안 율법의 힘 아래 놓인 상태가 지속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여자가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방되듯이 이미 율법에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힘 아래 놓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사도는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관습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했다. 이제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말했듯이 결코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자각 하게 한다.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의 죄를 자각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

바울은 곧이어 율법이 나쁘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바울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무능력이 그를 절망에 던져 넣었다. 육체의 율법 - 즉, 그의 죄성 -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여 반항하게 이끌었다. 죄가 그를 지배한 것이다. 바울은 고통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바울은 무엇인가가 그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오래된 죄성 가운데 - 그것이 계속해서 바울을 죄를 짓게 유혹한다고 깨달았다. (7:7-14)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여 부르짖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7:24) 그는 그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7:25)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 시켜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의 정죄는 없다고 말했다. 바울은, 8:1 장에서 그리스어로 그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않습니다.” 라는 부정 구를 문장에 가장 앞에 집어넣었다. 죄의식이나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든지 그것은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라는 시간적 의미는, 구원을 받은 후에 “더 이상의 정죄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죄의 대가를 감당하거나 죄의식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6:2-3) 죄의 권세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놀라운 자유는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에 어느 연약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은 죄의 묵인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반항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가진 사람의 형상으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므로써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인 것이다. (8:3)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에 대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시므로써 죄는 완전히 패배되었다. (히브리서 4:14-16절을 보라.)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획은 하나님의 율법을 앞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은 비효과적이다. 이 새로운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삶으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패배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를 다 이루셨다. (로마서 8:4) 사람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모두 지불 되었고 희생이 완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8:3-4).

죄와 율법의 통치로부터 자유해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8:4) 인간의 죄 된 본성은 강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율법은 죄악을 보여주며 사람의 죄들과 직면하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아래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기 (8:5-10)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율법과 싸우는데 인간의 힘으로 직면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죄와 옛 습성에 대하여 분투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 8:5-6절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항하여 싸워 주시는 것을 발견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산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 하셔서 사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평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8:5-8).

사도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 죄의 습성- 성령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을 비교했다. 다음을 비교하여 보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자
육신의 정욕에 따라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
사망	생명과 평화
하나님을 대적하기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 하지도 않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기	평화와 확신이 있음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살 수가 있다.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삶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치려고 노력함으로써 죄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8:10). 몸이 더 이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믿는 자들의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8:10)

성령 안에서의 확신 (8:11)

사도는 그가 편지를 쓰고 있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했다. “죄로부터 살아나신 예수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사신” 그 순간으로부터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신 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 해 준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삶속에는 그 같은 확신이 없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만이 확실한 확신이 있다.

오늘의 적용

1.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확신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새 몸을 가져다 주실 것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결코 완전히 지킬 수 없으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성육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으며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며 (부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승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것)
4.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 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질문

1.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 속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냅니까?
2. 당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갈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릅니까?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사실에 대하여, 당신은 가끔 그 진리를 망각 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에 관하여 계속 중점을 두며 살 수 있을까?
4.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 삶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게 만드는 올가미에 걸려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 대답입니까?

[참고]

바울의 육체와 몸에 관한 단어의 사용

바울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몸과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스어는 인간을 몸과 (유형의) 혼(무형의) 으로 간주하여 말했다. 그리스 적인 사상의 몸과 혼은 엄격한 이중성 이었다. 그러나 바울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몸과 혼은 따로 떼어 놓 수 없는 인간에 관한 개념인 유대인의 사상을 따랐다. 즉, 바울이 육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을 의미한 것이 아닌, 사람의 모든 존재에 관하여 사용한 것이다. 인간에 관한 이 유대인적 사상은 크리스천들에게 혼뿐만이 아닌 몸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끌어 준다.

<p>[제 9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승리하는 삶</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8:12-39</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8:12-39</p>	<p>학습주제 고난을 겪으며 시련을 겪는 데에서 예외 일 순 없지만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p> <p>탐구질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p> <p>학습목표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크리스천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보장받았다.</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몸과 영혼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하고 봉사한다 *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들어가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크리스천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는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 아래, 예수님의 완전한 행하심 아래, 성령님의 각각 개개인을 향한 섭리 아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있다.

“승리를 향한 짜릿함과 패배를 겪는 고통” 당신은 이런 말을 솔하게 들어왔을 지도 모른다. 혹은 이런 문구를 유명 텔레비전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서두로 시작하는 비디오를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비디오에서 스키 선수는 경사로를 멋지게 질주한다. 그러나 그 스키 선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을 향해 내동댕이쳐지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 그 생생한 광경을 전하며 아나운서는 기억에 남을 이런 말을 한다. “승리를 향한 짜릿함과 패배를 겪는 고통을 보라”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도 스키선수처럼 “패배를 겪는 고통”의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12-39절에서 설명하는 승리이다. 크리스천은 죄, 두려움, 시련, 그리고 마지막 순간 즉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길 갈망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증이 있기에 크리스천이 삶속에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은 확실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죄를 이기는 승리 (8:12-14)

모든 믿는 자들은 시험과 죄를 이겨내기 위한 강한 분투노력을 하게 된다.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의 전장의 진리를 통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결코 승리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놀라운 결론을 이렇게 표현했다.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로마서 3:23; 3:9-10절을 보자)
-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23)

사도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극복할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죄를 이기는 확실한 보증 즉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 8:1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운데 설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으로 그들은 죄를 뛰어 넘었다. 예수님의 죽의 심은 죄의 값을 치루셨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주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습성을 따라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예수님과 부활하게 되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이다. (8:1-11)

이 진실은 크리스천들에게 육체의 습관을 쫓아 더 이상 살지 않게 약속한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욕구나 행동을 쫓아가지 않는다. 육체를 쫓는 습성은 죄를 짓는 행동을 요구하며 그 욕구에 그대로 쫓을 것을 요구한다. 죄를 짓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있을 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크리스천들은 죄를 뛰어 넘을 수 있다. (8:12)

죄의 습성을 따라 가는 모든 자들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진리의 삶으로부터 나뉠 것이다 8:13)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육체의 악행을 완전히 멈춘다. “멈추다” 이 단어는 그만두다 또는 만약 그들이 죽었으면 행동도 멈추게 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죄의 경향으로부터 죽은 자들은 죄를 짓는 행동을 더 이상 살아 행동하는 자가 아닌 것처럼 대하게 된다.

죄의 경향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8:13) 라고 가르쳤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분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은 죄의 행동들을 죽이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일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한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성령님은 당신의 죄의 행동들을 당신의 삶 속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당신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죄와 육체를 뛰어넘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8:14) 당신은 단순히 성령님의 영향력과 다스리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성령님의 영향력과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 (8:15-17)

두려움과 걱정은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적들이다. 크리스천들이 죄를 뛰어 넘을 수 있음이 필요하듯이, 그들은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필요하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믿는 자들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사도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한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게 돕는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친밀한 “아바, 아버지” (8:15)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를 수 있다. “아바” 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가족들이 화목하며 친밀한 관계일 때에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 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갖는 특권은 이 세상 어떤 최고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아버지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된 가족들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에 양자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인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8:16-17절은 힘주어 말한다.

부모가 그의 자식을 사랑스럽게 돌보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은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뜻한다!

시련을 이겨내는 승리 (8:18-39)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에 이어, 크리스천의 삶은 또한 시련을 이겨내는 승리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과 같이 크리스천도 시련과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 어떤 시련들은 타락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음으로 생기는 결과에서 오기도 한다. 다른 어떤 시련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며 그런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기도 한다. 또한 어떤 시련들은 크리스천 스스로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기도 한다. (슬프게도 우리는 나쁜 결정을 내리는데 면역이 되어 있지 않다.) 시련이 오는 근원이 어떤 것이던지 간에 크리스천들은 시련과 고통을 직면해야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리스천들은 새롭게 재기할 수 있으며,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바울은 로마서 8:18절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갈 동안 겪는 고통이 최소한의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예로 사도행전 14:19-29절을 보시오.) 더불어,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하며 가르쳤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18)

다음 구절인 로마서 8:19절에서, 바울이 더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죄의 영향력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창세기 3:18-19절을 보시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8:22) - 이 고통을 마치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표현했다. 그것은,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해산의 과정처럼 마침내는 반드시 구출될 것을 표현한 것이다. 아기를 낳은 후에 엄마가 된 산모가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함께 고통을 겪는 (8:23) 믿는 자들과 피조물도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 (8:23). “첫 열매” 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게 하는 추수의 시작을 연상시킨다(8:19-23).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이(8:21), 믿는 자들도 마지막 양자결연을 기다린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다. (8:24-25)

믿는 자들은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참고 기다리지만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하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가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한다.” (8:26).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신다.” (8:26)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 하신다.

믿는 자들은 또한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시련을 이겨낸다. 로마서 8:28절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보배 같은 말씀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 이라고 선포하였다 - 좋은 것이던지 나쁜 것이던지, 어려운 것이든지 쉬운 것이든지, 행복할 때에나 슬플 때에나, 건강 할 때나 아플 때에나, 번성할 때에나 가난 할 때에나, 잔잔할 때에나 폭풍이 불어 닥칠 때에나 -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의 고백을 회상하여보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20)

언젠가 내가 내린 결정을 어느 집사님과 나눈 적이 있다. 신앙이 깊었던 이 집사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좋은 점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실행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았을 때 옳은 결정을 내렸던 것을 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크리스천은 그들이 시련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 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주셨던 것을 뒤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힘든 시련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시련을 이기는 승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과 임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오기도 한다. 로마서 8:30절에서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며,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 사람을 통해 보신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든 진전과 발달을 가지고 온다. (8:30)

로마서 8:31-39절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을 확신 할 수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8:32)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36절에서 바울은 시편 44:2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나긴 고통과 박해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고,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로마서 8:31-3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이다.

오늘의 적용

1. 삶의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는 승리인가? 회사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가? 사회에서 높은 평판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 우리는 승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한 번 생각해 보자.

2.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질문

1.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심각했던 유혹은 무엇인가? 성경께서 유혹들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허락할 수 있을까?
2. 당신의 어떤 습관들을 고치려고 시도해 본적이 있는가? 또는 시도해보았다가 실패 한 적이 있는가? 혹시 그 문제는 성령님께서 인간을 습성을 좇아 행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3. 당신의 두려움과 걱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건강, 재정, 가족들의 복지, 또는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 자주 걱정 하는 편인가?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일까?
4.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 어려움들을 직면하기 위하여 당신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참고]

삶의 변화를 직면하기.

여기 두 명의 사람이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그림이 있다. 그들은 그 문제의 결과를 그들의 손에 쥐고 있다. 아마도 그들의 건강 문제 일지 혹은 그들의 가까운 사람의 건강에 관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다른 심각한 변화에 관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에서 휩싸였으며, 마음이 산란하고, 무슨 일이 생길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변화를 인정하지만 평안을 누리며,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어떤 사람이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 사람 모두 안전한 사람들이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걱정과 두려움들에 휩싸여 있기 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거나 인생의 변화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이 글을 통하여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 혹은 당신의 - 인생의 변화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제안 할 수 있을까?

<p>[제 10과]</p>	<p style="text-align: center;">그러면 유대인들은?</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9:1-7; 10:1-13; 11:1-2 상반절, 25-3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9-11장</p>	<p>학습주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되고 있다</p> <p>탐구질문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실까?</p> <p>학습목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바울의 토론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가 보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공부하여 요약해보자.</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몸과 영혼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하고 봉사한다 *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들어가기

바울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는 실패되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이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던 나는 내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컴퓨터를 사기 위해 미국에 왔었으며 열렬한 유대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나사렛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다. 내가 나의 믿음을 함께 나눌 때 그는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내게 왜 그가 크리스천 사상을 용납하지 않는지에 설명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모두가 그를 알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를 믿고 인정했을 것이고 따랐을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기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 했을 때부터,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가 올 때에 모두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아무도 바꿀 수 없었다. 우리는 나뉘었다- 나는 실망했고 그 젊은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어둠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질문과 그의 대답이 아직도 나는 기억에 남는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나의 질문에 그의 두 뺨에 눈물이 고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매일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기를 매일 기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실까?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렇게 대답해 놓았다. 그는 강조했다.

- 하나님은 모두에게 -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주신다.
- 하나님은 그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신다.
-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 (9:1-7)

9장부터 11장은 꼭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될 로마서의 한 부분이다. 로마서 1장~8장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설명하였고, 12장~16장까지는 구원 받은 믿는 자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것은 완벽한 형성을 보여준다.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다. 1)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 2) 하나님의 약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들. 사도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로마서 1-8장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로마서 9-1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칠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들을 지키신다.

로마서 9:1절에서 그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근심하는 그의 “양심”은 확실한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이 말을 했던 의도의 일부분은 바울의 고집을 나타낸 것 같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한

적의심이나 무관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고집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그의 근심과 번민을 표출하였다. 이런 감정들은 또한 구약 성경에도 종종 표현되고 있다. (예레미야 4:19-22)

사도는 당신의 민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고 그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였다. 바울은 희생 제물로는 구원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세처럼 (창세기 32:32) 바울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섬기는 연결 고리가 되기를 바랐다.

바울이 백성들을 언급 할 때, 바울은 그들을 NIV 버전 의 그리스 원어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기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유대인들 이라는 말보다 좀 더 종교적 체색이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위치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신호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창세기 32:28, 35:10) 그리고 야곱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졌다. (창세기 32:32, 46:8)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넌지시 비추어 말하는 바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장점을 가르쳐주었다. (로마서 9:4-5)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 되어지는 “양자택함” 을 받았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성전 안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 을 체험했다.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창세기 12) 다윗에게 하신 약속 (삼하 7)과 같은 “언약” 들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율법” 을 받았으며 “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약속” 들을 받는 축복을 누렸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이 따를 “이스라엘의 12조상” 이 있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보내주신 점이다.

로마서 9: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호하고 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각각의 유대인들에게 향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9:6)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구원은 육체적 탄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증명했다.

유대인의 사상이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구원이 율법을 저버리지 않았던 개개인의 유대인에게 온다는 것과 사도의 생각은 달랐다. 바울은 성취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된 것임을 가르쳤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아직도 바라시는 것인, 믿는 모든 자들 - 회개하는 유대인 들을 포함하여 - 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길을 잃은 자들의 이유와 구원으로 향하는 길(10:1-13)

바울은 로마서 10장의 서문을 로마서 9:30-33절에서 나타내었다. 그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로움을 제공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 보단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을 획득하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기 위해 율법을 “추구” 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9:31)

바울은 구약의 두 참조를 사용하여 걸림돌 을 가르쳤다. (이사야 8:14; 28:16) 예수님께서서도 또한 돌에 관하여 이미지를 사용하셨다. (마태 21:42)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참된 방법을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으며, 율법을 지키므로써 의로움을 찾기 원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므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 이 있는 것을 칭찬했다. (로마서 10:1-2) “열성” 은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선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부패로부터 보호함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열성은 그럴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가버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약속에 그들 자신을 순종하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10:3) 빌립보서 3:6-9절에서, 바울은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행했던 그의 경험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길로 나아갔다.

로마서 10:4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 이 되신다고 기록하였다. 운동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 경주를 끝마치는 그림을 그렸다. 경주를 달리는 자가 달리는 이유이기도 한 결승점의 테이프를 끊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끝나쳐지길 계획하셨다. 율법을 시작하신 그 순간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끝마치는 주인 되신다.

로마서 10:5절에서 바울은 레위기 18:5절을 인용하였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므로 약속의 땅을 누리는 기쁨의 이익을 말한다.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노력해서 얻는 의로움을 대조했다. (10:6-8) 신명기 30:11-14절을 사용하여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의로움은 지금도 존재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 이라고 선언했다. 아무도 천국에 갈 필요도, 안전을 확인하러 지옥에 갈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서 이미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가능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참된 방법은 회개와 입으로 시인함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이다. (로마서 10:9-10)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는 아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10:11; 이사야 28:16) 로마서 10: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 되었다. “주” 라고 예수님을 부름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사도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인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크리스천의 기초를 확실히 했다. 복음은 구원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기 까지는 죄에 여전히 억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를 바가 없다고 선포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축복하실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며,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 (11:1-2, 25-32)

11장에서 바울은 9:6-29절에 그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그를 받아 들였는가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10:21)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11:2) 메시아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강박해졌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들의 완강한 고집으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 (11:7) 그럼에도 “남은 자들” (11:5) 즉 “선택받은 자” (11:7)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바울은 로마서 10:19-20절의 중요사항들을 재차 반복한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은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며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질투 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0:19; 신명기 23:21절을 보라) “질투 나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죄 된 태도나 행동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을 가르치고 있던 것이다. (로마서 11:11-15)

11:16-17절에서, 사도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인간 전체를 향한 목적에 연관되어 있는지 두 가지 예화를 사용하여 말해 주고 있다. 첫째로 바울은 말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를 말했다. 이것은 “거룩” 하게 하나님께 따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11:16) “말물” 은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둘째로 바울은 돌올리브 나무가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당한 것을 말했다. 유대인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주신 이방인들의 돌 올리브 나무를 말한 것이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나무 가지는 그들이 접목 받은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힘을 제공받는다. 그의 예화에서 바울은 좋은 가지를 나무에 접붙이는 일반적인 방법을 거꾸로 했다. 그래서 바울의 일화는 유대인의 자리를 확인했다. 사도의 포인트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첫째로 왔다는 것이나 그들의 거부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11:22-24)

25절에서 바울은 “신비한 비밀” 이라고 부르며 구원의 역사를 설명했다. (좀 전에는 이해 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그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고 말했다.

26절에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고 말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해석으로는 사도는 개개인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집단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온 이스라엘” 의 표현은 여호수아 7:25절, 사무엘하 16:22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온 이스라엘” 의 뜻은 각자 개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로마서 11:26절은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될 약속의 말씀인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들에 근거하여 존경을 받으심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영원히 불변하다.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순종치 않았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보여줄 자비를 베푸셨다. (11:28-3)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 은 (11:32 불순종의 감옥에 모두 갇힌 것을 말한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의 찬가로 결론을 짓고 있다. (11:33-36)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오늘의 적용

크리스천으로써 다음에 나오는 진리들을 적용해 봅시다.

- 하나님의 언약들과 약속들을 지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 유대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는 것.
- 유대인들을 향한 어느 편견들을 저항하는 것
- 이 발언들을 오늘날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말하길 거부하는 것

질문

1. 당신은 바울이 말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11:26)
2. 바울이 살던 시대의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까?
3. 이 구절들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자극이 있을 수 있을까요?
4. 유대인들과 연관 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도움이 될 어떤 다른 교육들이 있을까요?

[참조]

로마서 9: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하여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Translate (NIV 버전) 은 로마서 9:5절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 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신격에 대하여 확인 해주고 있다.

<p>[제 11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하는 삶</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12:1-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12:1-8</p>	<p>학습주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은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불러 주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다.</p> <p>탐구질문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데에 당신 자신을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 내어 드렸나?</p> <p>학습목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자비하심에 반응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결심하자.</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일을 결정하고 봉사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포함한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들어가기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신 은혜에 부합하여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며,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말했다.

내가 학위를 받은 후에 나는 교수님의 책상 옆 칠판 앞에 서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오늘은 작도 하는 법에 배우겠어요.” 라는 나의 말에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신음 소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6학년 시절 고상했던 선생님은 나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에 눈을 뜨게 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시형을 볼 때 한 문장 한 단어 단어마다 즐기곤 했다.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단어들이 중요할 수 있다.” 전체 문장의 뜻이나 이야기 전부가 만약이나 그 후 같은 조그만 단어에 의해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의 포커스를 바꿀 때 조그만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로마서 1-11장의 신학적인 통찰력에 관한 그의 생각을 로마서 12-16장의 실질적인 교훈으로 바꿀 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로마서 12:1)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에서, 또는 따라서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 때문에, 논리적인 결과를 도입함에 따라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반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크리스천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논리적 결과에 다다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신 구원이다.

이 구절에 간단하게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였다.

매 순간, 매일의 산 제물로 삶을 드리기. (12:1-2)

최근에 우리는 나발아카데미 졸업식에 참석했다. 브랜든은 육체적인 컨디션이 아주 좋았다. 우리는 왜 모두가 그에게 아이스크림, 쿠키와 과자들을 권하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훈련을 받았음을- 실제 상황과 같이 적군에 의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남는 훈련으로 또한 그 때문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됨 -알 수 있었다. 나는 브랜든이 그 자신을 조국을 위해 산 제물로 기쁘게 바치기 원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런 희생은 오직 깊은 사랑과 헌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와 같은 깊은 사랑과 헌신을 이해했다. 그는 그 자신을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라고 표현했다. (디모데후서 4:6). 로마서 1-11장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 후 로마서 12:1-8절에서 그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했다. 바울의 설득은 구걸하거나 선택사항이었거나 또는 애원하다 시피 부탁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대신에 그는 “좌석 벨트를 매렴.” 과 같이 부모들이 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부탁하였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 한다.(로마서 12:1)

개인적 희생은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종교적인 희생의 적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힌두교인 친구가 각을 뜬 것 외에는 한 번도 동물의 희생 제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초기의 크리스천들은 예배 의식의 한 부분으로써 희생 제물을 이해하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2:2)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첫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법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호세아 6:6)

바울의 청중들은 희생 제물은 흠 없고, 거룩하고, 올바른 동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을 지성과, 감성과, 매 순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37)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인 것이다. - 일주일에 단 몇 시간 동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항상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지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인 것이다.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내 딸 할리는 일 학년을 가르치고 있다. 할리는 남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 단원인 “벌레들, 나비들, 그리고 기어 다니는 것들” 도 가르친다. 아이들은 반죽을 하여 종이에 변태과정의 순서를 붙인다. : 알, 애벌레, 고치, 그리고 나비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또한 고치로부터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나비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변태는 단순히 나비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우리의 삶 속을 계속해서 변화 하게 인도해 주신다. “변화하다” 라는 동사는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변화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변화하심에 대해 묘사할 때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였다. (마태복음 17:2, 마가복음 9:2)

그러나 이 변화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요한다. 마치 나비가 고치로부터 나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려고 분투노력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2) 라고 엄격히 경고했다. “본을 받다” 라는 단어는 만들어진 틀에 모양을 맞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베드로도 또한 베드로전서 1:14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의해 똑같은 형상에 찍혀 내어 지는 젤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2) 본받던 것으로부터 변화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미지의 적대하는 단어와 이미지들로 꽂 차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 성경과 함께 계시고 은사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한 그것을 장려하고 돕고 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할 수 있다.(12:2)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증명되는 것이다.

베일러 대학교 도서관에서 봉사하던 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학교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가끔 나는 놀라곤 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말해주기를 어느 여학생이 의예과의 생물학 과목에서 B학점을 맞은 일로 의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테스트와

시도를 요구한다. 세상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설교가인 친구가 말했다. 어떤 것이 만약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을 리가 없다고.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리가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이다.

매 순간, 매일을, 실질적으로 살기 (12:3)

나는 교수님들을 존경했다. 나는 심지어 학교 식당의 음식도 좋아했다. 그러나 나는 대학교 밖으로 외출하는 시간을 너무나 좋아했다. 특히나는 나의 주일날 입고 갈 새로운 옷을 골라놓는 것을 좋아했다. 첫 주님의 날에, 나는 침대에서 일찌감치 일어나 머리를 말고, 화장을 한 후, 옷을 입고 준비를 끝냈다. 교회로 가는 길에, 나는 기숙사 밖으로 나가는 유리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미 부딪힌 내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무릎을 가장 먼저 세계 부딪혔으며, 나의 정강이는 굵혔고 나의 새 옷은 피가 묻게 되었다. 충돌은 현실이었다. 내 실수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나는 고개를 들어 위층을 바라보았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오만으로부터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12:3)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절에서 사도는 그리스천 공동체 안에 개개인 각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벗어나 말했다. 로마인이었던 그의 권력을 기억시킨 후에, 사도는 충고했다. 우리는 우리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또는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믿음 안에서 수행하는지 우리 자신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스천 공동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방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코너 안에서만 쪼그리고 있는 자들을 위한 방도 가지고 있지 않다. 건강한 프라이드는 하나님을 섬긴다. 잘못된 프라이드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매 순간, 매일을, 중성스럽게 살기 (12:4-5)

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0.25마일(약 0.4km) 떨어진 시골에서 자랐다. 나는 블레이 락스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메이블의 부엌은 언제나 신선한 빵을 굽는 좋은 냄새가 났으며, 빌리 프랭크 아저씨는 매 순간 우리를 재밌게 해 주었다. 빌리 프랭크 아저씨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싸웠는데, 어느 사진사가 “수리바키 산에서 깃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사진을 찍었던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1945년 2월 23일 그의 다리를 잃었다. 빌리 프랭크 아저씨는 지혈대를 사용하여 한 쪽 다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쪽은 잃게 되었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와 인간의 몸의 지체를 비교함을 읽을 때마다 (12:4-5) 빌리 프랭크 아저씨와 그의 잃은 한 쪽 다리를 생각하게 된다. 빌리 프랭크 아저씨는 그의 한 쪽 다리 없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두 다리를 다 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그렇게 잘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교회 멤버의 결석, 나태, 또는 무관심에도 교회는 활동할 수 있지만 아주 잘 활성화 되지는 않는 것을 알았다.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심장은 폐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없으며 또는 간이 신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할을 대신 할 수 없다. 아이들은 눈과 귀가 다섯 가지 감각 중 두 가지 감각을 담당 하는 것을 배우지만 그것으로 나머지 맛보기, 냄새 맡기, 느끼기는 대신 할 수 없다. 모두가 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알렉산드르 뒤마의 삼총사에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모두를 위해서 한명이, 한명을 위해서 모두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주었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였다.

이것이 바울이 묘사했던 바와 같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골로새서 1:18),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고린도전서 12:12-27),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하는 말이었다. (에베소서 4:16)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 후 각각의 크리스천들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한다. 하나님의 사명은 같이, 그리고 개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다.

나의 남편은 스포츠 팀의 협동을 그리스도의 몸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식축구의 쿼터백으로부터 골을 차는 사람, 야구에서 투수와 외야수, 농구에서 수비수와 공격수까지 각각의 선수들이 독특하지만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 모두 다 똑같은 않지만- 그들의 유니폼만 제외하고- 그들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매 순간, 매일을 효과적으로 살기 (12:7-8)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영적 은사들을 우리를 위해 신중하게 고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6)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중요하게 관련된 예와 각각의 따로 사용되는 은사들을 나열해 놓았다 : 예언, 성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일,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12:7-8)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다른 리스트를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12장) 에베소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11) 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말을 하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을 언급했다. (베드로 전서 4:10-11절)

하나님은 영적 은사들의 리스트 중 어느 것도 고갈 되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 모두가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그들은 그 선물들의 중요성을 말하기를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각각의 다양성을 증명한 것이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은사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단순히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다. 은사가 없는 것도 은사인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치 우리가 생일 선물로 받은 포장된 선물을 열어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열어 보며 즐거워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은사를 낭용한다.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진 은사(들)를 알 수 발견 할 수 있을까? Yours for the Giving 이라는 책에서 바바라 조이너는 목록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 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열정과 능력으로 둘러싸인 나의 은사를 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도록 깊은 소망과 열망을 주신다.

매 순간, 매일을 반응하며 살기

몇 년 동안 나는 행동에 옮기기 위하여 나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소녀들을 이끌었다. 매 12월마다 우리는 소년들을 우리의 선교 공부 모임에 초대했다. 1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신 선교사님들은 가난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 부부는 세계의 굶주림을 M&Ms(초콜릿, 캔디 회사의 상표) 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굶주리고, 매일 허기에 지쳐있는, 반대로 음식이 풍족하고, 풍부함을 누리는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의 백분율을 계산하여 지역별로 캔디봉지를 놓았다. 많은 곳에서는 하나의 캔디 봉지만을, 어떤 곳에서는 세 개, 다른 곳에서는 열 개를, 어떤 곳에서는 거의 없기도 했다. 우리는 그 캔디 봉지들을 임의로 분배해 놓고서 굶주림에 대해 이야기 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오직 한명의 조그만 소년만이 그의 볼록 나온 캔디 봉지를 열고 나눴다. 그가 나눴을 때에 우리는 그 자신은 사탕 한 개도 먹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물으니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이 행동이 내게는 크리스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기록하고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대로 그대로 따라 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 치의 거짓된 오만 없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에 따라 행동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가?

설교자인 친구는 크리스천의 삶과 음악을 비교했다. 우리가 독주곡 듣기를 즐겨할 수록, 선율은 풍성한 화성 음에 비해 부족한 것이다. 교회에 있는 우리 개개인은 함께 노래해야 한다. 우리의 독주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목소리들에 합하여 아름다운 풍성한 소리를 내어보자.

질문

1. 우리의 삶을 기록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방법에는 무엇들이 있을까?
2.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에 따라 가는 삶을 피할 수 있을까?
3.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확실히 알았을 적을 회상 할 수 있는가? 당신은 그 때 어떻게 확신 할 수 있었는가?
4. 교회가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좇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5. 당신의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뢰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에게 당신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지를 물어 보자. 그들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참고]

성경에 나타난 영적 은사들

우리가 예언은 앞날의 일어날 일만을 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미리암 선지자로부터 (출애굽기 15:20)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예언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매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이 섬기는 은사를 주신 자들의 끊임없이 돌보고 묵묵히 하는 행동은 종종 잘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도르가와 (사도행전 9:36-41) 스테반처럼 말이다. (사도행전 6:1-6)

성경의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로써 잘 표현하며 가르치는 은사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며 삶을 변화시키게 한다. 에베소서에서 아볼로라는 선생님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만난다. (사도행전 18:24-26)

요한과 마가를 격려했던 바나바와 (사도행전 15:36-40)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와 (요한 12:1-3) 같은 격려하는 자들은 곤경에 빠졌을 때, 약한 때의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는 은사를 가진 것이다.

가난한 과부나 (누가 21:1-4) 니고데모와 같은 (요한 19:38-42) 어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넘어나 그들이 가진 것을 관대하고 기쁘게 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지도자와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률 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게 감독한다. 근면한 데보라가 그러했고 (사사기 4) 또한 여호수아가 그러했다. (여호수아 1:1-15)

자비로운 크리스천은 특히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 들던 소녀가 그의 문둥병을 낫게 했으며 (열왕기하 5:1-14)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베푼 자비가 그러했다. (열왕기상 17:7-24)

많은 지체들, 그러나 한 몸인 교회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 전체 교인의 4분의 1보다 적은 숫자만이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자.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까? 교회의 모든 멤버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며 돕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p>[제 12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이렇게 살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12:9-18; 13:1-1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12:9 --13:14</p>	<p>학습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p> <p>탐구 질문 어떤 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방법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가? -- 세상 풍속인가? 아니면 성경적 교훈인가?</p> <p>학습 목표 내가 실천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 중 최소한 한 가지 명령을 실천할 것을 결심한다.</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도록 도운다 * 몸과 영혼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하고 봉사한다 *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들어가기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 관료들,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어렸을 때, 나는 여름 캠프를 굉장히 좋아했다. 수많은 놀이들로 하루를 채웠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온 감동적인 편지들로 채워졌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마샬, 마이클, 그리고 할리도 역시 그들의 캠프 여행을 떠났다. 나는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 존과 나는 매일 편지를 썼다. 우리는 만화책에서, 스포츠 사진들 등으로 우리의 편지들을 채웠다. 나는 종종 나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할 실질적인 조언을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를 보내기도 했었다.

바울 역시 믿음 안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그리스도인 삶에 실질적인 조언과 지침을 같은 방식으로 썼다. 우리도 역시 그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

매일, 어느 곳에서든지 진실하게 살아라 (12:9-21)

바울은 은사에 대한 지침을 준 뒤 (롬 12:6-8),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 (12:9-13:14).

바울은 누구나 동의할만한 말로 시작했다. 그는 사랑과 진실함을 연결시켰다. 물론 우리도 역시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가식이 있어서도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12:9). 위선과 이기심 없이 사랑하는 것은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낸다.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 한다 (12:9). 그 둘은 함께 동행 한다. 한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한 자기의 아들에게 있었던 아찔했던 순간을 이야기해주었다. 같이 풋볼을 하는 어떤 친구가 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술과 마약까지 먹고 있었던 파티장소에서 집까지 차로 태워주기를 부탁했고 아들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파티 장소에 도착했다. 그 풋볼 팀 동료를 태우기 일보 직전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행히 혈액 검사와 증인들의 도움으로 그 두 젊은이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질 뻔 했었다. 그 엄마는 가끔씩 아들에게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곤 했다. 그 아들은 끔찍한 경험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었고 그때 택시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도록 강조했다 (12:10). “형제의 사랑”은 깊고, 풍성하며 이타적인 우정을 포함한다. 현대 미국 사회는 내가 먼저 사상을 가르친다. 바울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중이 되어서 겸손히 섬기도록 권면한다. 잠언은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잠 18:24) 고 말씀한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열심을 내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일하라고 했다 (롬12:11). “열심”은 NIV는 “Zeal”로 번역했는데, 이 네 개의 알파벳은 강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열렬한 헌신, 열성적인 노력, 불같은 열정.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다른 신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김을 통해서 기쁜 소망을 드러낸다 (12:11-12a).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이다. 12:13절을 참조하라.

인내는 20세기의 미덕이 아니다. 분명히 그것은 1세기의 미덕도 아니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도록 권면했다 (12:12).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인내와 믿음의 기도로 나타난다(12:12).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살전 5:17). 그것이 바로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이 했던 일이다(행 1:13-14).

로마서 12:13절에서 바울은 강조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불행히도, 나누는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기심을 극복한다. 그러한 나눔은 거리를 건너고 세상을 건넌다. 성경 시대에 호텔과 식당은 단지 숙박을 위해서 존재했었다. 자선은 잘 곳과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것을 의미했다. 아프리카의 시골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오늘날 그러한 종류의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이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뒤에 바울은 로마서 12:14-21절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 하고 “저주” 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 5:44)고 말씀하셨다.

교만과 자만은 한계가 없다. 자아로 가득찬 사람은 교회의 하나 됨을 깨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특히 우리가, 혹은 교회가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 (롬 12:16)려고 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 교만하고 속물적인 태도는 바울의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바울은 원수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2:17). 복수는 이기심과 같이 타고나는 것 같다. 우리 아들 마살이 3살이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런적이 없었는데 두 살짜리 아이를 깨운 적이 있었다. 남편과 나는 아들을 훈계했다: “깨우는 일은 나쁜 짓이야. 그것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 다시는 물론 안돼!” 그러자 마살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동생을 깨울었던 말야.” 마이클의 팔을 보니 과연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하지만 진실한, 신실한 사랑은 복수의 자리는 없다. 복수는 결코 사랑의 집에 살지 않는다(12:19-21).

매일, 모든 곳에서 순종하며 살라 (13:1-7)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서신에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삽입한 것에 대해 궁금해 한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필요성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진정 로마의 도로와 견고함은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

authorities later saved him from flogging and death in Jerusalem (Acts 22-23).

로마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었다.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포함되어 있었다(행 18:1-13).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호의적으로 보았다고 믿는다. 어쨌든 바울을 주로 박해한 것은 유대인들이었다. 사실 로마 정부는 후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던 바울을 구해주었었다(행 22-23).

바울이 로마 교회에 특별한 조언을 한 것이지만 그의 일반적인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다. 바울은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롬 13:1). 이는 모든 정부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를 통치하실 수 있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이는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13:2)이기 때문에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서도 모른척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세를 가진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13:4; 고전 4:1-5; 고후 5:10).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순종을 선택한다면 일어날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는 느브갓네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고 불구덩이에 던져졌다(단 3장).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오직 그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사자의 굴에 던져졌다(단 6장). 20세기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3:1-7절은 정부주도의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해주는 말씀으로 인용했고 독일 나찌 정부의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이용했다. 아니다! 바울은 결코 정부는 항상 복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공권력을 두려워해야 하고 "옳게 행한"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롬 13:3).

바울은 또한 로마 교회와 우리들에게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13:5) 하라고 요청했다. 정부에 복종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회계사 남편은 매년 세금보고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내야 될 세금,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고 두려워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13:6-7).

히브리서 13:17절은 이렇게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매일, 모든 장소에서 사랑으로 살라 (13:8-10)

대학생 시절에 나는 유치반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미션프렌즈(Mission Friends)를 인도한 적이 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블록을 쌓고, 집안 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에 빛을 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을 가르쳤다, 이 사랑의 빛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이다(13:8). 로마서 초반에서 바울은 이 책임을 “그리스인이나 비그리스인들” (1:14) 모두에게 확장시켰다. 간음, 살인, 도둑, 탐욕과 관련된 구약의 몇 가지 계명을 언급한 뒤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롬 13:9)는 한 가지 농축시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 말씀은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곳에서 - 그리스도인들끼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 적용되는 것이다.

매일, 모든 장소에서 빛 가운데 살라(13:11-14)

아마도 어린 시절에 당신은 “이 작은 나의 빛” 이라는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집게손가락으로 “비추게 할테야” 라고 노래를 부르며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바울은 빛의 이미지를 잠자는 것과 옷을 입는 이미지로 비유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롬 12:1-2)을 하도록 강조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롬 13:11). 다음으로 우리는 “빛의 갑옷” 을 입고 “어둠의 행실” 을 벗어버려야 하며 “낮에 행하듯이 단정하게 행해야” 한다(13:12-13). 마지막으로 옷을 걸쳐 입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정욕” 을 벗어 버려야 한다(13:14).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실함, 순종함, 그리고 사랑으로 매일, 모든 장소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Questions

질문

1. 당신보다 높은 사람을 존경했던 때를 기억해보라. 어려웠나?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2.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자선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3. 왜 교만과 허영심은 교회의 연합을 분열시키는가?
4.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신은 법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 혹은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가? 당신은 기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5. 우리는 어떻게 “빛의 갑옷” 을 입고 “어둠의 행실들” 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롬 13:12)?

[참고]

침례교와 권리장전(Bill of Rights)

미국의 조상들이 처음 신대륙에 왔을 때, 그들은 영국처럼 종교세금을 부과하고, 교회출석을 의무화 했다. 펜실베니아와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침례교인들은 투옥되어야 했고, 핍박을 당해야 했다.

1777년 침례교 목사 존 렐랜드(John Leland)는 버지니아로 이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을 이끌었다.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감옥에서 침례교인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785년, 매디슨과 렐랜드의 후원으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종교 자유법”을 만들었고, 결국 버지니아의 침례교인들과 장로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끝이 났다.

1787년 헌법 위원회가 각 주에 헌법을 보냈을 때, 렐랜드는 버지니아 침례교인들과 함께 거부운동을 벌였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렐랜드는 매디슨을 만나서 만일 매디슨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을 약속하면 매디슨을 지지하기로 동의했다. 과연 그의 약속대로 1789년 매디슨은 종교의 설립에 관련된 최초 수정안이 포함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상정했고, 1791년 발효되었다.

<p>[제 13 과]</p>	<p style="text-align: center;">당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그리스도인을 환영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롬 14:1-2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롬 14:1-15:13</p>	<p>학습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격려해야 한다.</p> <p>탐구 질문 그리스도인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비난과 판단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p> <p>학습 목표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갈라서게 만드는 저주와 판단을 멈추게 하는 길을 생각해본다.</p> <p>실천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들어가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 가운데서 살라고 요청했다.

아마도 나처럼 당신도 운전 면허증을 정말 갖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운전 면허증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살던 지역은 운전 교육에 패스하면 14살부터 운전 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내가 다니던 학원은 6월에 운전 실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즐거운 여름 캠프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운전 하는 것을 당분간 포기하던지. 마침내 엄마가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다. 나의 이모 할머니께서는 당시 여름 캠프에서 상담 책임을 맡으셨는데 운전 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다. 이모 할머니께서 나를 교육시켜 주실까? 엄마는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나는 남은 모든 순간들을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고, 묻고, 토론하고, 다시 읽고, 다시 토론하곤 했었다. 나의 강사 (이모 할머니)는 완벽을 추구했다. 그녀는 모의 테스트에서 100점 만점을 요구했다. 그 결과, 꿈 속에서도 교통 신호등이 보일정도였고, 고속도로 표지판의 모든 표시들을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결코 운전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표시들을 붙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학습을 위해 교통 표시의 개념을 이용할 것이다.

정지 (14:1-6)

정지 신호는 혼동할 것이 전혀 없다. 당장 정지하는 것이다. 완전히 서는 것이다. 나의 남편은 이것을 어느 늦은 밤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배웠다. 정지 신호 앞에서 부주의한 결과 차가 앞으로 나갔고, 이것을 본 주변에 있던 경찰이 티켓을 끊었던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들은 혼동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그는 로마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로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의 분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될 분열을 알고 있었다. 오늘의 시각으로 돌아보면 그들의 갈등들은 무엇을 먹는가, 어떤 날들을 지켜야 하는가와 같은 사소한 것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날의 갈등들 역시 당시의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들은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구원의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옳고 그름에 관련되지 않은 하찮은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가르쳤다.

바울은 하찮은 문제들이 교회를 두 파로 나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 쪽을 믿음이 “약한 자”로 다른 한 쪽을 “강한 자”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강한 자”로 포함시켰다 (롬 14:1, 15:1).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알보았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비판했다. 아마도 강한 자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 구약의 음식에 대한 율법을 (레위기 11장) 무효화한다고 믿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일부 성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자유를 주었다. 이와는 달리 전통에 얽매인 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규칙들을 종교적으로 지켰다. 이 두 그룹은 서로를 비난했다.

우리 역시 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교회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갈등의 끝은 매우 깊었는데, 그 이유는 그 갈등의 원인이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지켜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While this situation seems a bit different from eating meat sacrificed to idols in 1 Corinthians 8-10, Paul offered similar advice.

첫째로, 바울은 강한 자들을 교훈했다. 그는 그들이 비판적이라는 것을 지적했고, “믿음이 약한 자를 아무런 시비거리 없이 받아” 들여야 된다는 것을 (롬 14:1) 언급했다. 그는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약한 자들은 오직 “식물” 만 먹었다 (14:2). 비록 유대교의 율법이 식물만 먹도록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정결한 고기를 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함께 고기 먹는 것을 피했을 것이다.

바울은 “모든 것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설파했다 (14:3). 믿음 안에 성숙한 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예수의 희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관계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14:3). 왜 각 그룹은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둘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인만이 그의 종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14:4). 다른 말로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바울은 다른 쪽 무리로 옮겨갔다. 이 무리들 역시 상대쪽 무리들을 비방하고 있었다. 약한 자들은 특별한 절기들, 아마도 유대의 축제들을 준수했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논쟁은 예배를 드리는 날도 관련되었었던 것으로 믿는다 - 전통적인 안식일 혹은 주의 마지막 날이 옳은 것인지 주님이 부활하신 날, 혹은 일요일이 맞는 것인지 (행 20:7).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런 문제로 서로 싸워서 안 되는 것이며 그들의 충성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롬 14:5-6).

돌아가시오 (14:7-12)

작은 마을에서 자랐던 나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 작문 경연대회를 위해서 우리를 주의 수도로 운전해서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일방통행 길을 다녀본 적이 없었다. 운전을 했던 험프리 선생님도 그런 길은 처음이었다. 정면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뺨뺨거리며 난리가 났었다. 경찰이 우리를 세웠고 참을성 있게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경고를 받았다. 나는 당시에 부끄러워서 차 바닥에 바짝 엎드려 숨고 싶을 정도였다. 슬프게도 어떤 운전자들은 이 일방통행 길을 무시하고 정면에서 오는 차량들과 부딪쳐 사고를 내곤 한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라고 썼을 때, 자신이 영향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4:7). 영향력은 관계 사이에 스며들어서 죽음 저편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영원토록 속해 있다 (14:8-9). 그러므로 바울은 인생은 “주님을 향하여” (14:6) 살아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바울은 "...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혹은 당신의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라고 묻는다 (14:10). 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8절에서 "우리" 를 10절에서 "그대" 로 바꾸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14:10). 바울은 로마의 재판석을 잘 알고 있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나는 고고학자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심판석을 발굴했던 장소를 본 적이 있다. 거기에서 군중 가운데 홀로 섰던 바울은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 하는 죄로 붙잡혀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갈릴오를 대면했었다 (행 18:13). 로마서 14:11-12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45:23절을 인용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 7:1-2).

양보 (14:13-21)

바울은 14:13절에서 가속 기어를 넣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도 양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7:14-23절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에코우라도 하듯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롬 14:14).

이것은 강한 자들이 정결하지 못한 고기를 먹는 자유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러한 자유를 갖고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할 때라도 강한 자의 그러한 행동들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대답하기를 "그렇다" 라고 했다. 만일 우리가 필수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비판을 한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다 (14:15).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사랑은 자유를 알리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말할 때의 세 가지 규칙" 에 대해서 들어보았을지도 모르겠다. (1) 그들에게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라. (2) 그들에게 말하라. (3) 그들에게 당신이 말했던 것을 말하라. 바울은 그 규칙을 따랐다. 그는 "먹는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망치지 말라고 다시한번 썼다 (14:20). 바울은 오히려 강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고기를 먹는다는가, 술을 마신다는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4:21)라고 말했다.

주의 (14:22—15:13)

한 친구가 나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시골 지름길을 이용해보라고 권했다. 내가 급커브를 돌았을 때, 소떼가 지나가는 곳이니 주의하라는 노란 색의 표지판이 있었다. 나는 내 친구도 그것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속도를 늦추었을 때 그녀는 나를 쳐다보면서 한 소 앞에서 차를 세우라고 말했다.

바울은 14:22-15:13절에서 주의를 주고 격려를 하면서 로마서 주요 내용에 대한 끝 인사를 했다. 그는 깨끗한 양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 (14:22-2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15:1-3).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15:1-2).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 먼저 생각하는 세상을 구해야 한다.

15:4-13절에서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삼하 22:50, 시 18:49; 신 32:43; 시 117:1, 사 11:10) 하나님과 서로 받아주는 것에 대해 호소했다. 그 다음에 그의 개인적인 계획들과 인사로 편지를 끝맺기 전에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15:13).

목적에 위한 표지들

바울의 편지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때때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통쾌함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선입견으로 간파한다. 혹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자신의 더러운 창문을 통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분명한 지혜로 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다.

오직 그렇게 할 때 바울의 아름다운 축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15:6). 우리는 “하나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오직 그렇게 할 때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행 1:8).

[질문]

1. 오늘날 당신이 생각하기에 비필수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당신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취해져야 할 행동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3. 당신은 다음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기독교 믿음에 필수적이지 않은 법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문제들과 관련된 기독교의 메시지를 지켜야 한다.
4. 하나됨과 획일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5. 당신은 다음 격언을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과 당신 자신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최대화 하고 분열 시키는 것을 최소화 하라”
6.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교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1. 당신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가족을 피자 파티에 초청했다. 당신 아이들은 페페로니를 좋아한다, 하지만 당신은 선교사들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2. 당신은 한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다. 청소년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교제실에서 댄스 파티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 밤비는 이전에 세상 유흥업계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알고 있는 예배 인도자가 그녀가 독창을 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문신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교회보다는 세속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다.